

# 베이비부머 세대의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삶의 질의 영향

최옥분, 김가연\*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the Baby Boomer Generation's Perception of Well-Dying Preparation

Ok Boon Choi, Ga-Yeon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요약**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최근 고령화시대와 은퇴시기가 맞물려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충남 천안시 인근지역의 베이비부머 세대 4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후검증방법으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활동적 삶의 질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적 삶의 질과 환경적 삶의 질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삶의 질과 환경적 삶의 질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활동적 삶의 질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활동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환경적 삶의 질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후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더불어 이들의 죽음준비에 관련 있는 여러 기관 및 기구들에게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Abstract** The baby boom generation, which played a key role in Korea's economic growth,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with awareness of dying well after aging and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quality of life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affects their preparation for dying well, and from March 2019 to October 2020, 430 baby boomers in Cheonan, Chungcheongnam-do, were studied.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SPSS Ver. 23.0 and includ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s,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s post-test methods. After conducting the Scheffe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an active lif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emotional readiness for dying well, but emotional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had no significant effect. Second, emotional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preparations for dying well, whereas the quality of an active life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the quality of an active life and emotional quality of lif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hysical preparations for dying well, but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had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valuable basic data for peopl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who reach old age, and will benefit various organizations related to preparation for death.

**Keywords** : Well-Dying, Baby Boomer, Active Quality of Life, Emotional Quality of Lif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Generation's Perception

---

\*Corresponding Author : Ga-Yeon Kim(Dankook Univ.)

email: sys-nhj@dankook.ac.kr

Received April 4, 2023

Revised April 26,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 1. 서론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1,2]. ‘한강의 기적’ 경제활동의 주체였던 이들의 삶은 그 어느 세대보다 굴곡이 많고 격정적이었다. 1997년에 들이닥친 IMF의 외환위기를 통해 많은 아픔을 겪었던 세대이며, 이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상위의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민의 삶의 질 또한 어느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 시간이 지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IMF 이후 빨라진 정년퇴직으로 대다수가 경제력이 격감하였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3-5].

지난 세기 동안 서구사회에서는 좋은 죽음, 품격 높은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왔다[6,7]. 한국 사회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웰다잉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며 죽음의 존엄성이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웰다잉 시민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 장기기증 및 연명의료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이어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되고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이들에게 죽음 준비교육을 통하여 죽음을 미리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또한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삶의 질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지금 노년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죽음에 관한 준비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본론

### 2.1 연구 방법

#### 2.1.1 연구 모형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과 웰다잉 준비인식 간의 상호영향을 알아보기로 Fig. 1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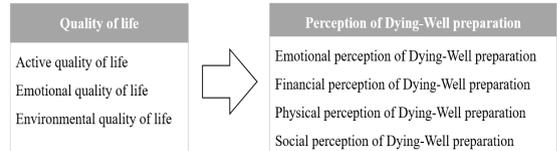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1.2 연구 가설

본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은 웰다잉 준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충남 천안시 인근지역(천안시, 소수의 아산시 및 평택시)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하여 43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T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2.1.4 측정도구

웰다잉 준비인식의 하위변수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웰다잉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죽음태도와 자아 통합감 및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효과[9]에서 9개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10]에서 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삶의 질 연구의 설문항은 3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11-14]. 각 문항의 리커드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 유무, 부모 동거, 주택 소유, 죽음 교육 유무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Sex	Male	135	31.4
	Female	295	68.6
Birth Year	1961-1963	220	51.1
	1958-1960	97	22.6
	1955-1957	113	26.3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254	59.1
	Bachelor's Degree	138	32.1
	Graduate School	38	8.8
Religious	No	165	38.4
	Yes	265	61.6
Presence of Partner	No	61	14.2
	Yes	369	85.8
Occupation	Office worker	96	22.3
	Self-employed	165	38.4
	Professional	43	10.0
	Housewife	66	15.3
	Others	60	14.0
Monthly Income	Less than 1mil. won	85	19.8
	1-3 mil. won	159	37.0
	3-5 mil. won	105	24.3
	5-7 mil. won	36	8.4
	More than 7mil. won	45	10.5
Presence of Children	No	19	4.4
	Yes	411	95.6
Living with Parents	No	381	88.6
	Yes	49	11.4
Own One's House	No	56	13.0
	Yes	374	87.0
Presence of Education on Dying	No	357	83.0
	Yes	73	17.0
Total		430	100.0

## 2.2 연구결과

### 2.2.1 삶의 질

삶의 질에 관한 12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0 이상인 활동적, 환경적, 정서적 삶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3개 요인으로 추출 구성하였으며, 요인 분석결과와 요인별 문항은 Table 2 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들 요인 중 '활동적 삶의 질'이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총 누적 분산량은 64.990%이었고, Cronbach's  $\alpha$  계수가 0.784~0.854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2.2.2 삶의 질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웰다잉 준비인식에 관한 13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0 이상인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의 4개 요인으로 추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은 Table 3 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59.217 %였으며, Cronbach's  $\alpha$  계수(신뢰계수)가 0.611~ 0.72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과 웰다잉 준비인식의 신뢰도 분석에서는 다항목의 척도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였다.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이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2.2.1 삶의 질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삶의 질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890$ ,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39로서 설명력이 13.9%로 나타나 1단계보다 6.2%가 증가하였다. 삶의 질에서는 활동적 삶의 질 ( $\beta=.186$ ,  $t=3.024$ ,  $p<.01$ )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2.2 삶의 질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Table 5 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 삶의 질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  $F=8.884$ ,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69로서 설명력이 26.9%로 나타나 1단계보다 16.3%가 증가하였다. 삶의 질에서는 활동적 삶의 질( $\beta=.259$ ,  $t=4.565$ ,  $p<.001$ ), 정서적 삶의 질( $\beta=.223$ ,  $t=4.008$ ,  $p<.001$ )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삶의 질보다 활동적 삶의 질에서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해 활동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of quality of life factor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	Cumulative dispersion value(%)(Confidence Coefficient)
Active quality of life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work?	.820	2.765	23.042	23.042 (.854)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ctivity and mobility?	.814			
	Do you have enough energy to do your daily activities?	.748			
	Can you easily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for your life?	.711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Are you satisfied with the house you live in and the surroundings?	.768	2.583	21.523	44.565 (.784)
	Are you satisfied with the help of friends or neighbors?	.736			
	Do you think your daily living environment is safe?	.728			
	Are you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685			
Emotional quality of life	Are you enjoying life?	.760	2.451	20.425	64.990 (.803)
	Are you enjoying your leisure time?	.756			
	Are you getting a good night's sleep?	.715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ex life?	.656			

Table 3. Result of analysing dying-well preparation awareness elements and reliability

Factor Orde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	Cumulative dispersion value(%)(Confidence Coefficient)
Aware of social well-dying preparati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welfare center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 programs	.778	2.222	17.902	17.092 (.729)
	Willingness to volunteer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725			
	Willingness to donate talent to society	.721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well-dying education in the future	.705			
Aware of economic well-dying preparation	Medical expenses are prepared until death	.863	1.900	14.618	31.710 (.690)
	Able to live a financially stable life until the end of life	.749			
	Prepared for property inheritance	.644			
Aware of physical well-dying preparation	Eat regular meals for health	.814	1.874	14.417	46.126 (.685)
	Try not to overeat for the sake of my health	.741			
	Exercise regularly for my health	.725			
Aware of emotional well-dying preparation	Think that death is a natural part of life and an inevitable event	.767	1.702	13.091	59.217 (.611)
	Am ready to accept the death when the time comes	.721			
	Want a natural death without the aid of a medical device	.714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Emotional Well-Dying Readiness Percep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emotional well-dying preparation					
		Level 1			Level 2		
		$\beta$	t	P	$\beta$	t	P
Demographics	Sex	-.048	-.865	.387	-.033	-.604	.546
	Age	.117	2.255*	.025	.116	2.293*	.022
	Level of Education	.150	2.651	.008	.102	1.840	.066
	Presence of Religion	-.001	-.030	.976	-.029	-.605	.545
	Presence of Partner	.125	2.418*	.016	.107	2.110*	.035
	Occupation1a)	-.065	-.929	.353	-.064	-.948	.344
	Occupation2b)	-.144	-1.869	.062	-.139	-1.855	.064
	Occupation3c)	-.041	-.662	.508	-.034	-.566	.572
	Occupation4d)	-.106	-1.618	.106	-.103	-1.609	.108
	Monthly Income	.029	.474	.636	-.021	-.351	.726
	Presence of Children	.039	.757	.449	-.008	-.161	.872
	Living with Parents	.042	.876	.382	.047	.999	.319
	Own One's House	-.056	-1.080	.281	-.063	-1.234	.218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34	.689	.491	.024	.514	.608
	Quality of life	Active quality of life				.186	3.024**
Emotional quality of life					.005	.078	.938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112	1.812	.071
F		2.451**			3.890***		
R2		.077			.139		
$\Delta R^2$					.062		

\* $p < .05$ , \*\* $p < .01$ ,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2.2.2.3 삶의 질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6 에 나타내었다. 1단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삶의 질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1.093$ ,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315로서 설명력이 31.5%로 나타나 1단계보다 13.4%가 증가하였다. 삶의 질에서는 정서적 삶의 질( $\beta=.170$ ,

Table 5.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preparation time for physical well-d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readiness for physical well-being					
		Level 1			Level 2		
		$\beta$	t	P	$\beta$	t	P
Demographics	Sex	-.165	-2.998**	.003	-.127	-2.546*	.011
	Age	-.009	-.175	.861	-.004	-.084	.933
	Level of Education	.154	2.773**	.006	.064	1.247	.213
	Presence of Religion	.130	2.719**	.007	.089	2.038*	.042
	Presence of Partner	-.090	-1.763	.079	-.134	-2.877**	.004
	Occupation1 <sup>a)</sup>	.031	.454	.650	.016	.256	.798
	Occupation2 <sup>b)</sup>	.054	.709	.479	.042	.605	.545
	Occupation3 <sup>c)</sup>	.044	.727	.468	.045	.809	.419
	Occupation4 <sup>d)</sup>	.062	.966	.335	.062	1.044	.297
	Monthly Income	-.083	-1.375	.170	-.131	-2.374*	.018
	Presence of Children	.102	2.018*	.044	.025	.545	.586
	Living with Parents	.097	2.056*	.040	.081	1.822	.061
	Own One's House	.079	1.554	.121	.073	1.560	.120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61	1.262	.208	.054	1.228	.220
	Quality of life	Active quality of life				.259	4.565***
Emotional quality of life					.223	4.008***	.000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029	.504	.614
F		3.489**			8.884***		
R <sup>2</sup>		.106			.269		
$\Delta R^2$					.163		

\* $p < .05$ , \*\* $p < .01$ ,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t=3.144$ ,  $p < .01$ ), 환경적 삶의 질( $\beta=.210$ ,  $t=3.819$ ,  $p < .001$ )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삶의 질보다 환경적 삶의 질에서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해 정서적 삶의 질과 환경적 삶의 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the perception of preparation for economic well-d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economic well-dying					
		Level 1			Level 2		
		$\beta$	t	P	$\beta$	t	P
Demographics	Sex	.087	1.652	.099	.114	2.353*	.019
	Age	.100	2.041*	.042	.100	2.228*	.026
	Level of Education	.135	2.535*	.012	.053	1.077	.282
	Presence of Religion	.009	.188	.851	-.040	-.939	.348
	Presence of Partner	.009	.177	.859	-.028	-.626	.532
	Occupation1 <sup>a)</sup>	-.073	-1.110	.268	-.069	-1.145	.253
	Occupation2 <sup>b)</sup>	.039	.542	.588	.047	.706	.481
	Occupation3 <sup>c)</sup>	-.011	-.187	.852	-.004	-.073	.942
	Occupation4 <sup>d)</sup>	-.027	-.433	.665	-.041	-.713	.476
	Monthly Income	.272	4.705***	.000	.219	4.103***	.000
	Presence of Children	.022	.456	.649	-.039	-.858	.391
	Living with Parents	.104	2.302*	.022	.107	2.563*	.011
	Own One's House	.165	3.373**	.001	.139	3.086*	.002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065	1.404	.161	.063	1.481	.139
Quality of life	Active quality of life				.091	1.664	.097
	Emotional quality of life				.170	3.144**	.002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210	3.819***	.000
F		6.523***			11.093***		
R <sup>2</sup>		.181			.315		
$\Delta R^2$					.134		

\* $p < .05$ , \*\* $p < .01$ ,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2.2.2.4 삶의 질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1단계에 삶의 질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6.857$ ,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21로서 설명력이 22.1%로 나타나 1단계보다 8.6%가 증가하였다.

Table 7.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the perception of preparation for social well-d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readiness for social well-dying					
		Level 1			Level 2		
		$\beta$	t	P	$\beta$	t	P
Demographics	Sex	.068	1.257	.209	.095	1.830	.068
	Age	-.044	-.873	.383	-.044	-.915	.361
	Level of Education	.243	4.445***	.000	.177	3.338**	.001
	Presence of Religion	.150	3.179**	.002	.124	2.753**	.006
	Presence of Partner	.073	1.451	.148	.043	.890	.374
	Occupation1 <sup>a)</sup>	-.053	-.783	.434	-.066	-1.016	.310
	Occupation2 <sup>b)</sup>	.061	.809	.419	.052	.723	.470
	Occupation3 <sup>c)</sup>	.046	.760	.447	.046	.804	.422
	Occupation4 <sup>d)</sup>	-.001	-.014	.989	.006	.092	.927
	Monthly Income	.003	.055	.957	-.033	-.573	.567
	Presence of Children	-.009	-.176	.861	-.066	-1.365	.173
	Living with Parents	-.008	-.170	.865	-.021	-.466	.641
	Own One's House	.034	.673	.501	.033	.688	.492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116	2.440*	.015	.108	2.380*	.018
Quality of life	Active quality of life				.221	3.764***	.000
	Emotional quality of life				.138	2.408*	.016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007	.114	.909
F		4.595***			6.857***		
R <sup>2</sup>		.135			.221		
$\Delta R^2$					.086		

\* $p < .05$ , \*\* $p < .01$ , \*\*\* $p < .001$   
 a) occupation 1(employee=1, the rest=0),  
 b) occupation 2(CEO=1, the rest=0),  
 c) occupation 3(professional=1, the rest=0),  
 d) occupation 4(housewife=1, the rest=0)

삶의 질에서는 활동적 삶의 질( $\beta=.221$ ,  $t=3.764$ ,  $p < .001$ ), 정서적 삶의 질( $\beta=.138$ ,  $t=2.408$ ,  $p < .05$ )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서적 삶의 질보다 활동적 삶의 질에서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대해 활동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ctive quality of life			Emotional quality of lif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	135	3.802	.589	4.344***	3.375	.739	3.136**	3.598	.562	2.137*
	Female	295	3.518	.708		3.130	.757		3.460	.647	
Birth year	1961-1963	220	3.620	.659	.512	3.260	.717	1.137	3.522	.600	.582
	1958-1960	97	3.642	.694		3.134	.790		3.443	.653	
	1955-1957	113	3.553	.727		3.168	.809		3.520	.647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54	3.484 b	.684	15.703*** (a>b)	3.102 b	.770	9.221*** (a>b)	3.409 b	.619	13.169*** (a>b)
	Bachelor's Degree	138	3.703 b	.639		3.287 b	.707		3.558 b	.581	
	Graduate School	38	4.086 a	.591		3.623 a	.703		3.934 a	.620	
Religious	No	165	3.555	.644	-1.261	3.129	.809	-1.690	3.406	.644	-2.573*
	Yes	265	3.640	.708		3.256	.723		3.564	.605	
Presence of Partner	No	61	3.393	.874	-2.651**	2.858	.885	-3.949***	3.311	.765	-2.612**
	Yes	369	3.643	.643		3.265	.721		3.535	.593	
Job	Office worker	96	3.688 a	.610	3.809** (a>b)	3.260	.740	1.467	3.490	.660	.642
	Self-employed	165	3.668 ab	.654		3.207	.799		3.532	.626	
	Professional	43	3.715 a	.563		3.341	.657		3.599	.463	
	Housewife	66	3.333 b	.722		3.222	.628		3.432	.669	
	Others	60	3.538 ab	.837		3.011	.857		3.458	.616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 won	85	3.353 b	.752	9.248*** (a>b)	3.094 b	.841	2.798* (a>b)	3.368 b	.721	5.181*** (a>b)
	Less than 3 mil. won	159	3.538 b	.668		3.126 b	.747		3.404 b	.635	
	Less than 5 mil. won	105	3.709 ab	.606		3.321 ab	.700		3.615 ab	.506	
	Less than 7 mil. won	36	3.674 b	.651		3.194 ab	.687		3.632 ab	.651	
	More than 7 mil. won	45	4.044 a	.565		3.459 a	.763		3.750 a	.486	
Presence of Children	No	19	3.000	.917	-4.023***	2.649	.919	-3.318***	3.053	.695	-3.257***
	Yes	411	3.635	.660		3.233	.742		3.524	.614	
Living with Parents	No	381	3.601	.688	-.497	3.196	.770	-.833	3.519	.635	1.442
	Yes	49	3.653	.667		3.293	.665		3.383	.518	
Own One's House	No	56	3.464	.808	-1.679	2.929	.749	-2.976**	3.246	.632	-3.356**
	Yes	374	3.629	.663		3.249	.753		3.542	.615	
Pre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Dying	No	357	3.577	.688	-2.010*	3.207	.770	-.032	3.489	.637	-1.028
	Yes	73	3.753	.654		3.210	.708		3.572	.554	

†10.000, \*p<.05, \*\*p<.01, \*\*\*p<.001, a, b is the result of Scheffe verification (a>b)

### 2.2.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석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웰다잉 준비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이 2개인 성별,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부모 동거, 주택 소유, 죽음 교육 유무는 t-test를 실시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집단이 3개 이상인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은 ANOVA를 실시하여 평균을 비교하였고, 사후다중비교를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Table 8 과 같이 나타내었다. 성별, 학력,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직업, 월수입, 자녀 유무, 주택

소유, 죽음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활동적,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활동적,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환경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보다 직장인과 전문직에서 활동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보다 700만원 이상에서 활동적,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활동적,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집단에서 정서적, 환경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죽음 교육 유무에서는 죽음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활동적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 3. 결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고 1997년 IMF의 외환위기를 겪었던 세대이다.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성실성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삶의 질이 웰다잉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 삶의 질은 소득이나 부의 증가로 인한 생활의 양적인 개선만으로는 인간 생활의 풍요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생활의 질적인 충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기된 사회복지 이론의 한 개념으로 외형적 생활과 내면의 심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1,12,16].

활동적인 삶의 질, 정서적인 삶의 질, 환경적인 삶의 질 3요인을 분석한 결과 활동적 삶의 질이 정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임 등[17]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죽음 준비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서적 삶의 질과 환경적 삶의 질이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활동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이 신체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환경적 삶의 질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이 사회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환경적 삶의 질은 경제적 웰다잉 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활동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은 웰다잉 준비인식 전체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활동적, 정서적, 환경적 삶의 질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월수입이 높을수록 모든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18]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직업, 자녀유무, 주택소유, 죽음교육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변 등[19]의 연구결과 웰다잉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미부여와 함께 올바른 죽음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 삶의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도 연관이 있기에 정부나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편안한 죽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웰다잉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모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정서적 불안정의 성격과 표면적으로는 삶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호감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K. H. Jung, S. J. Lee, Y. K. Lee, S. B. Kim, W. D. Sun., et al.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ort*, 2010.
- [2] [www.census.go.kr](http://www.census.go.kr), 2010 Statistics Korea Population Census Sample Aggregation Results.
- [3] W. G. Cho,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Well-dying", *Booknamu*, Seoul, 2015.
- [4] E. Levinas, "God, death and time, Trans Bettina Bergo, ed. Jacques Rolla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A, USA, 2000.

[5] M. A. Lee, B. H. Yoo, "The class development of liberal arts through link of well-being, well-dying and housing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5, No. 2, pp. 267-280, 2016.  
DOI: <https://doi.org/10.5934/kjhe.2016.25.2.267>

[6] S. O. N. G. Yoon, *A study on the meaning of life for middle aged adults, spiritual well being and attitude towards death*, master thesis for Dongkook university Buddhism culture department, 2015.

[7] E. Kubler-Ross, "Living with Death and Dying", Simon & Schuster/Touchstone, 1981.

[8] G. J. Sin,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ell dying education on middle and old aged people*, master thesis for Hoseo university cultural well being and counselling department, 2008.

[9] M. S. Jang, *The effect of well dying preparation program of middle and old aged people on their attitude towards death, self integrity and preparation for old age*, PH.D Thesis for Daegu Haany university, 2016.

[10] Konyang university well dying syncretism research society, "What is well dying life?", *Cloudybook*, 2019.

[11] G. S. Lim, *A Study on Cognition of Quality of Life of ChunCheon Citize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12] G.V. Padilla, M. M. Greant,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1, pp.45-47, 1985.  
DOI: <https://doi.org/10.1097/00012272-198510000-00007>

[13] J. G. Han, *Relationships among quality of life, happiness factors, and mindfulness trai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0.

[14] G. S. Kang,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 care worker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2012.

[15] O. B. Choi, G. Y. Kim, Y. K. Lee,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Generation on Their Perception of Preparation for Dying-Wel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286-296,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286>

[16] J. N. Yang, *A Study on the Level of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in Busan*. *Korea Institute for Busan Development Research Report*, 2002.

[17] H. N. Lim, S. H. Lee, K. H. Kim,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dying with dign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5, pp.137-144,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5.137>

[18] H. R. Kim, *The effec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s income level on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2014.

[19] M. K. Byun, H. J. Hyun, S. J. Park, E. Y. Choi, "Efficacy of Well-dying Program for Meaning of life, Self-efficiency, and Successive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13-42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13>

최 옥 분(Ok Boon Choi)

[정회원]



- 2012년 3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석사)
- 2020년 1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사임당화장품 연구소장 및 대표이사

<관심분야>

보건사회학, 보건학, 공중보건학

김 가 연(Ga-Yeo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임상미생물학, 보건학, 보건위생학, 학생제대성